# 2016년 제15회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 전시 전략 심포지엄

**주최/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월간「공간(SPACE)」

**일시**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6년
# 제15회

# 베니스
# 비엔날레
# 건축전

# 전시 전략
# 심포지엄

# 심포지엄 구성

## 발제1

한국관 전시 운영의 흐름과 미래 방향
이용우(상하이 히말라야 뮤지엄 관장)

## 발제2

성공적 전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실천 과제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

## 발제3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현황과 예측
정소익(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비엔날레 총괄)

## 토론

2016년 한국관 전시 전략
정연심(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이용우, 정소익, 조민석,
한종률(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발제1




## 이용우

- 상하이 히말라야 뮤지엄 관장

### 경력

-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심사위원, 2015
- 세계비엔날레협회 초대회장, 2013
-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2013
- 제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2003
- 고려대 미술학부 조교수, 2000
- 영국미술사학회 20세기분과 위원, 1995
- 세계미술평론가협회 이사, 1995
-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1995
- 제1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실장, 1995
- 고려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조교수, 1994~2000
- '미술평단' 주최 미술평론상 공모에 신인미술평론부문 당선, 데뷔, 1991
-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기자, 1975~1993

### 학력

- 영국옥스퍼드대학교대학원 미술사 박사
-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 석사
- 연세대학교 국문학 학사

# 한국관 전시 운영의 흐름과 미래 방향
## Biennale As Cultural Action



### 비엔날레의 문화 행동적 요소

약 2주 전에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총감독인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와 만났다. 대화는 그의 2008년도 밀라노 트리엔날레(Milan Triennale) 출품작 까사 벨 뚜띠(Casa per tutti) 중심으로 흘렀다. 작품명을 번역하자면 '모든 사람의 집'이란 뜻인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작업이었다. 이 작업을 통해 그가 건축을 사회적 실천 개념에서 바라보는 인물이자 공동체 건축이 지닌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인식한 건축가란 점을 가늠할 수 있었다. 주요 화두는 최근 30여 년 동안 문화가 총체적으로 상업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극히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업적 문화형식에 비판적 의식의 날을 세운 이론가 또는 실천가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오늘날 문화 전반의 대중화, 대중문화화, 또는 문화의 상업화 문제는 서로 겹치고 얽히며 여러 가지 결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이자 오늘날 문화전략 담론의 중심에 있으며, 나는 감히 이 사안이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을 비롯해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대단히 중요한 미학적,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제 주제에 기재된 미래, 예측, 성공과 같은 단어는 이 자리가 미래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기획 의도임을 알려준다. 이 전략이 목표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관이 거두었던 성과나 역사성에도 논점이 있지만, 금번 행사에는 앞으로 건축전에서 한국관이 가질 내용과 깊이를 보다 심층화하는 전략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내의 비엔날레 역사도 20년 내공을 쌓았다. 1993년 휘트니 비엔날레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1994년도 광주비엔날레 창설이 추진되고 1995년에

제1회의 막을 올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4년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비엔날레와 다른 미술 축제의 차이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맥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오늘 발제의 제목을 '문화 행동으로서의 비엔날레[Biennale As Cultural Action (Social Media)]'라고 정했다. 수없이 많은 미술 관련 전시가 있지만, 비엔날레는 그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자기 언어와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비엔날레 속에 담긴 문화 행동적 요소다. 이를 제하고 나면 비엔날레 존재가치의 대부분이 소멸할 정도다. 따라서 하나의 소셜 미디어 개념에서 비엔날레의 성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정보는 전 세계에 274개의 비엔날레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계비엔날레협회에서 집계한 내용으로 그 숫자가 엄청나다. 1990년대 초중반에 시작된 비엔날레 부흥의 열기가 오늘날의 274개의 비엔날레를 만든 것이다. 이는 소위 경제적 글로벌리즘, 로컬, 세계화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 관광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그런가 하면 아트페어도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는데, 현재 312개에 이른다. 소위 국제주의적 요소가 강한 두 종류의 예술 행사가 전 세계 예술가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 대중문화의 확장과 예술비평의 죽음

예술 행사의 열기 속에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바로 '예술비평의 죽음(Death of art criticism)'이다. 해당 표현은 하버드대학교 교수이자 미술비평가인 벤자민 부흘로(Benjamin Buchloh)가 2001년도 「옥토버(October)」와의 인터뷰에 소개된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대면하고 있는 이론적 실천의 부족함이 바로 '예술비평의 죽음'이란 것이다. 그는 여기서 '예술'이라는 종합적 표현을 써서 미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영역을 지칭하고 있다. 이런 분석의 배경에는 이미지 문화의 상승세에 따른 활자 매체의 하락을 전제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소식,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이야기 등 적대적 개념의 대중문화를 담은 활자 지면이 확장세를 보이면서 건축, 미술, 연극 등 속칭 순수문화의 비평이 약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엔날레는 건축, 디자인, 판화, 공예 등 각 영역에 관한 비평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현시대 다른 비평의 예로 블로그 비평, 딜러 크리틱(dealer critic)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비평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블로그 비평은 독일 작가이자 비평가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의 표현,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를 빌어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은 비평가이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딜러 크리틱의 경우, "이 작품은 굉장히 좋으니까 사세요"하는 식의 대단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 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한다. 이처럼 시장(마켓)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예술을 비평하는 현상까지 이르렀는데, 그 속에서 대중문화가 적극적으로 성장, 증식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술계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무렵 문화 행동 장에서도 그 특유의 말춤이 유행했었다. MoMA의 전 직원이 모여 싸이의 춤을 추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출신의 작가








1.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는 주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당시 그는 “억압을 중지하고 표현을 허락하라(End repression, Allow expression)”라는 적힌 안내판을 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2. 게리의 건축을 “보여주기 식 건축(showy architecture)”로 지칭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10초간의 침묵을 깨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3. 또 다른 스펙터클 문제로 이탈리아 밀라노 증권거래소 앞에 설치된 마우리지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작업을 들 수 있다.

아이 웨이웨이(Ai Weiwei)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감금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아이웨이웨이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담은 패러디 비디오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바 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비판하는 은어인 '차오니마(草泥馬) 스타일'이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는 주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 웨이웨이를 따라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당시 그는 "억압을 중지하고 표현을 허락하라(End repression, Allow expression)"라는 적힌 안내판을 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중문화의 또 다른 속성을 비판하는 사건으로 프랭크 게리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스페인의 오베디오에서 열린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 상 시상식의 기자회견 중 게리의 건축을 "보여주기 식 건축(showy architecture)"로 지칭한 기자의 질문을 듣고, 10초간의 침묵을 깨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오늘날 건축계에 내포된 스펙터클 문제를 담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 주석이 보여주기 식의 건축, 이른바 중국의 문화적 성향과 크게 관계가 없는 건축물에 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의 건축 방향이 급진적으로 바뀌겠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른바 건축에서의 스펙터클을 지양하고 보다 중국의 문화적 속성이 짙은 건축물이 등장할 것이란 생각이다. 또 다른 스펙터클 문제로 이탈리아 밀라노 증권거래소 앞에 설치된 마우리지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작업을 들 수 있다. 밀라노 시의 공공예술 공모를 통해 채택된 안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과연 이 작업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가치인 증권거래소를 상징하고 있느냐 혹은 자본을 비평하는 것이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작가의 표현 의지에 맡기고, 이 작업이 생산할 또 다른 맥락이 있을 것이란 결론으로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도시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다.

## 2015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맥락

베니스 비엔날레재단에서는 미술, 건축, 영화, 연극, 음악 등 6개의 비엔날레를 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니스 도시의 문화생산과 전략적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주제 '모든 세상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 속에는 중요한 문맥 두 가지가 있다. 먼저 1867년도에 출판된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원제: Das Kapital)』이 금년도 비엔날레의 맥락을 결정하는 텍스트로 사용됐는데 책의 표지에는 '정치경제에 대한 비판(Capital: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이라고 적혀있다. 즉, 21세기에 들어서 15년이 흐른 이후에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적 강령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하는 총감독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관객 50명을 초청해서 독일어, 불어,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자본론』 텍스트를 읽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만약 이 퍼포먼스가 미술관 전시의 일부로 진행됐다면 큰 사건이 되었을 테지만, 다양한 미학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목소리를 수용하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해당 이벤트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맥락으로 인식되었다. 또 하나의 문맥으로 언급되는 책은 1967년에 발행된 기 드보르(Guy Debord)의 『스펙터클의 사회(원제: La Soeiete du Spectacle)』다. 두 책은 100년을 사이에 두고 발행되었다. 미술도 건축과 마찬가지로 스펙터클적 요소가







4. 베니스 비엔날레재단에서는 미술, 건축, 영화, 연극, 음악 등 6개의 비엔날레를 열고 있다.
5.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임흥순 작가의 은사자상 수상소식이 여러 매체를 타고 보도됐다.

존재하는데, 드보르는 책에서 설치나 전자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스펙터클을 향해 '스펙터클 폭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스펙터클 자체가 하나의 장대한 광경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홀리고, 속이는, 시각적 위계의 변형을 가능케 하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책에선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제도, 가치 등에 의해서도 존재하는 스펙터클을 파헤친다. 이 두 요소를 두고 미술계에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비엔날레의 시각적 즐거움은 소멸되고 이념논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 중심적인 문화로부터 예술을 구원시켜 건강하고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진 비엔날레로 탈바꿈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임흥순 작가의 은사자상 수상소식이 여러 매체를 타고 보도됐다. 사실 지켜보면 우리나라는 베니스 비엔날레 수상 소식을 가장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베니스 비엔날레의 가치가 비엔날레의 맥락에 있지 않고, 수상에만 중요도가 있다고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한 매체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아트 올림픽'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런 선정주의(sensationalism)에 휩싸이다 보면 예술 행사가 스포츠화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관의 작가 전준호, 문경원 또한 훌륭한 영상작업을 선보였다. 사실 비엔날레에 참가자들은 누가 상을 받았는지 모른다. 각자 스스로 상을 뽑는다.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다. 나도 그들의 글을 보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시선 속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느냐다. 오늘날의 예술 행사가 언론의 보도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 중복되는 예술가와 큐레이터, 그리고 반복적인 행사 내용 등으로 인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스펙터클로 흘러갈 수 있으나 이런 큰 맥락을 먼저 이해하면서 베니스 비엔날레에 접근해야 한다.

## 차별화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이 황금사자상을 받은 배경에는 모든 파빌리온이 건축을 미학적으로 접근할 때 한국관은 건설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차별점에 있다. 심사위원단은 한국관을 방문하고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다. 남북한이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점 이외에도 한국전쟁의 상처, 그리고 재건의 시간 동안 서구가 겪은 건축적 모더니즘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건설을 경험하게 된 상황 등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담론의 방향이 타 국가관과 확연히 다른 파빌리온으로는 한국관이 유일했던 것이다. 한국의 건축이 아닌 남북한의 건축을 동시에 다루면서 분단의 현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이루었다. 전시를 통해 한 건축가의 개별성보다는 집단성과 사회정치적 실천이 잘 어우러져 나타났다.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절묘하게 파고든 커미셔너의 안목이 훌륭하게 빛난 대목이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국제전에서 은사자상을 받은 임흥순의 작업은 탈미학적 작업으로, 노동자의 현실을 굉장히 시적으로 잘 풀어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이 강렬하면서 작가의 영상미학이나 해석이 탁월하다는 것이 심사평이었다. 이 역시 한 작가의 예술적 실천보다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예술, 다시 말해서 소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문화행동 요소가 강한 작업이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대중적 재미보다는 대중적 고통, 소외된 자의 이야기를 말했단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성을 가진 접근으로 눈길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짧게 2015년도 미술전의 국가관 황금사자상을 받은 아르메니아관을 언급하자면 올해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기를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한 전시를 풀어냈고, 국제전 황금사자상은 미국 작가 아드리안 파이퍼(Adrian Piper)가 수상했다.

베니스 비엔날레 심사는 사실 심사라기 보다는 일종의 적극적인 노동 형태다. 90여개의 국가관을 관람해야 하는데, 올해 심사에는 닷새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돌아다녔다. 전략이란 표현이 적절하진 않으나 심사위원단이 90여개 관을 돌아다니는 여건을 감안한다면 차별화된 맥락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 여실히 중요해진다.

베니스를 찾는 관광객수만 해도 1년에 4천만 명 정도다. 이 도시에 예술의 이름을 단 6개의 행사가 열리고, 그 중에서도 미술과 건축이 한 묶음이다. 2016년 내년 열릴 건축전을 기대하며 아라베나 총감독이 발표한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를 지켜보겠다.





6. 2015년도 미술전의 국가관 황금사자상을 받은 아르메니아관을 언급하자면 올해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기를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한 전시를 풀어냈다.
7. 2015년 미술전의 아이슬란드 국가관은 무슬림 공동체와 아이슬란드의 협업 작품을 선보였다.

## 발제2




## 조민석

- 매스스터디스 대표

**학력**

- 뉴욕 컬럼비아대학 건축대학원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경력**

- 조슬레이드 아키텍처
- 매스스터디스

**수상**

-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황금사자상 수상, 2014
-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건축부분 은상, 2010
- 세계 최우수 초고층 건축상(International Highrise Award; DAM), 2010
- 세계 최우수 초고층 건축상(International Highrise Award; DAM), 탑5 선정, 2008
- 미국 프로그레시브 아키텍처 어워드, 2003, 1999
- 미국 젊은건축가상(뉴욕건축가연맹), 2000
- 신건축국제도시주거공모전, 1994

# 성공적 전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실천 과제



오늘 발제에서는 지난 2014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커미셔너로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진행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소개하겠다.

첫째, 전시 주제에 관한 이야기다.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총감독 렘 콜하스가 국가관에 제시한 '근대성의 흡수: 1914~2014'를 두고 한 달 동안 분석을 하고 계획안을 발표했다. 당시 커미셔너 선정 과정에서 공개공모를 했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아 초대 형태로 4인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나의 제안은 '남북한 건축'이었다. 여기에 더해 전시가 전시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매개가 되고 싶었다. 이전까지 선보인 건축전의 한국관 전시를 되돌아보면 일종의 책과 같다는 느낌이었다. 각 건축가의 부문마다 똑같이 공간을 분할하고, 형식을 갖추고 평준화하려는 접근이 항상 아쉬웠다. 전시도 공간의 시각적 경험이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 이전의 틀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하고 싶었다. 평준화된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이끌어가야 성공적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제 선정 이후엔 기자회견, 전시 리서치 및 구상, 작가 초대, 현지 방문, 행사 장소 섭외까지의 업무가 개관 4~5달 전까지 이뤄졌다. 나는 특히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에서 소개된 김수자의 <호흡: 보따리> 전을 관람하며 공간을 세세히 느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관 건립을 위해 백남준 선생이 남북한 공동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한 한국관의 역사를 연구하며 전시를 구상해 나갔다. 또한 남북한 공동전시를 이루기 위한 플랜 A를 성공하기 위해 개관 6개월 전까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 결국 플랜 B로 가면서 김수근, 김기찬, 서예례, 김동우, 닉 보너, 오사무 무라이 외에도 총 29명의 작가를 섭외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형민,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안창모 두 분이 역사가이자 이론가로 공동 큐레이터 역할을

지원해주었다. 나는 전시관 공간 설계까지 하며 1인 3역을 소화해야 했다.

셋째, 약 2달에 걸친 전시물 제작 단계다. 한국관은 전시공간으로선 정말 유별난 건물이다. 보통 전시관이 4개의 꼭짓점을 갖는 사각형의 공간이라면, 한국관은 총 19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3m 이상 길이로 된 벽도 없다. 그러나 초기 한국관의 건립 역사가 내포하듯이 건물 자체의 근원에 '남북공동'이란 화두가 확실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공간을 그대로 살리는 명분은 확실했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색을 사용했다. 한국관에서 열린 이전의 전시를 회상해보면 공간의 잠재력보다는 꾸미는데 욕심을 냈었다. 미술전에서는 공간을 살린 전시도 몇몇 있었지만 건축전에선 공간 안에 집을 짓는 다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넷째, 전시 추진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기금 조성이다. 제안서를 열 군데 보내면 한 군데서 답변이 겨우 올 정도로 가시밭길인 일이지만, 커미셔너가 풀어가야 할 중대한 숙제이다.

다섯째, 운송은 설치날짜보다 70일 이전에 가야 한다. 비행기는 시간이 절약되지만 비용이 비싸 개인적으로 배편을 이용하는 걸 추천한다. 운송 이후 여유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쓰고 카달로그, 브로셔 등을 만들고, 아이덴티티 관련 제품을 제작한다. 현장 설치는 한달 이상 걸리기는 국가관도 있지만, 나의 경우 2주 전에 현지에 도착해 10일 만에 끝냈다.

마지막으로 홍보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늦게 시작한 편이다. 건축전에선 유독 개관 몇 달 전부터 SNS를 통해 국가관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의도된 신비주의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편을 택했다. 사실 설치 기간에 우연찮게 홍보할 기회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개관 전에도 관련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번지고, 이를 통해 일종의 평이 공유되곤 한다. 프레스 사전 오픈 기간이 3일인데, 심사위원단은 국가관 65개, 몬디탈리아 전시 45개, 어림잡아 약 100개 넘는 전시를 관람한다. 심사위원단은 총감독이 정한다. 이전까지는 백인 남성 건축가 위주로 구성됐으나, 콜하스가 구성한 심사위원단은 나이지리아 출신 건축가 쿤레 아데예미(Kunlé Adeyemi), 이탈리아 출신 유네스코 총회장 프란세스코 반다린(Francesco Bandarin)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중국, 아랍에밀레이트 출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제의식 자체가 역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성은 적절했지만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다. 2016년 건축전의 총감독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성향에 따라 심사위원단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큰 주제 속에서 커미셔너의 분석을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프닝 행사, 매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프레스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사실 이런 활동은 수상을 목표로 두고 한 게 아니다. 나로선 초기 의도가 좌절한 상태에서 플랜 B를 만든 마음이었기에, 단지 다양한 사람이 전시를 계기로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의의였다. 비공식적이지만, 로마주재 북한대사 가족도 전시장에 방문했다.

건축전 이후에도 베니스 한 · 중 · 일 지붕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 와중에 아르코미술관에서 귀국전(2015년 3월 12일 ~ 5월 10일)을 열었고, 현재 뉴욕 티나 김 갤러리(전시 기간: 2015년 9월 10일 ~ 10월 17일)에서도 전시가 진행 중이다. 장소 특정적 전시이기 때문에 총 3번 전시공간 디자인을 해야 했다. 일련의 경험들이 다음 커미셔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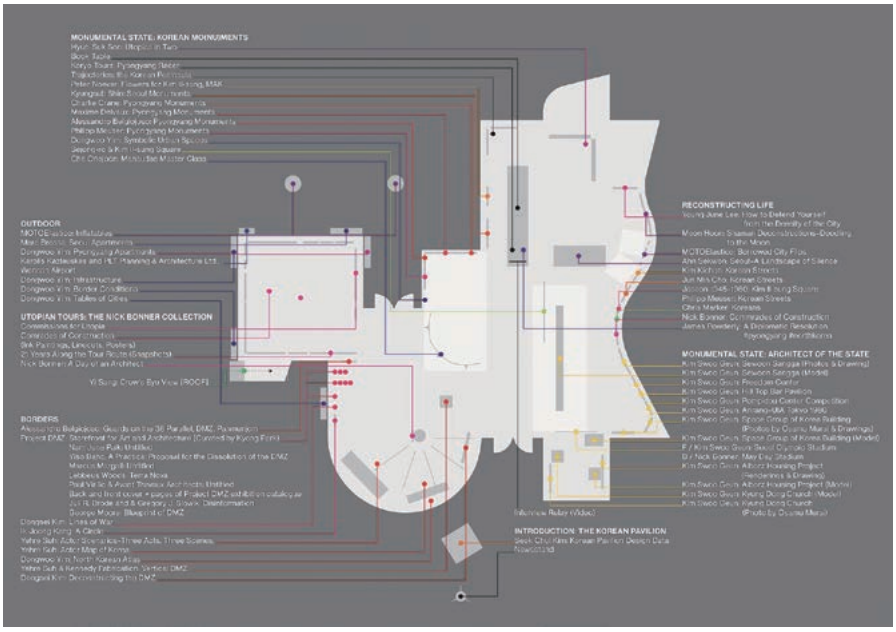


1.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에서 소개된 김수자의 <호흡: 보따리> 전을 관람하며 공간을 세세히 느꼈었다.
2. 남북한 공동전시를 이루기 위한 플랜 A를 성공하기 위해 개관 6개월 전까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
3. 결국 플랜 B로 가면서 김수근, 김기찬, 서예례, 김동우, 닉 보너, 오사무 무라이 외에도 총 29명의 작가를 섭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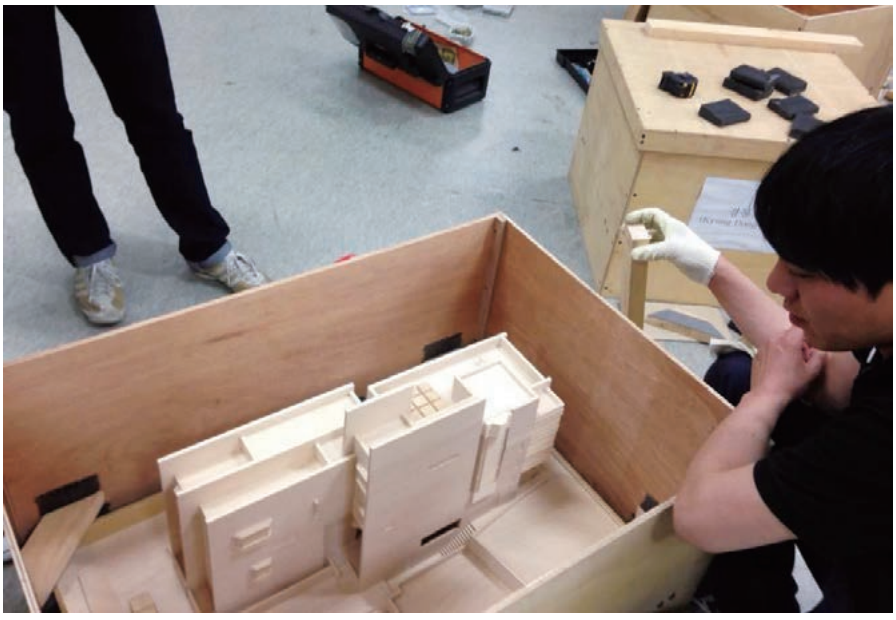




4.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형민,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안창모 두 분이 역사가이자 이론가로 공동 큐레이터 역할을 지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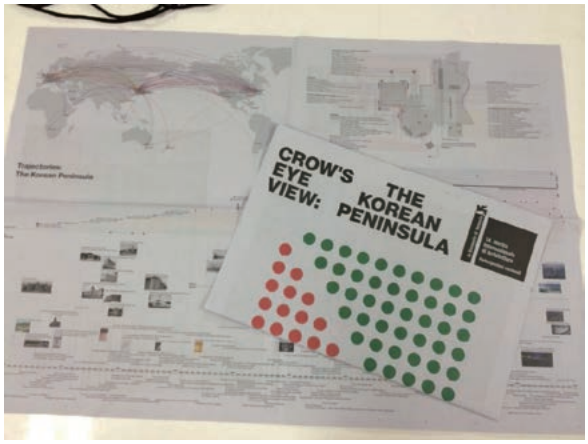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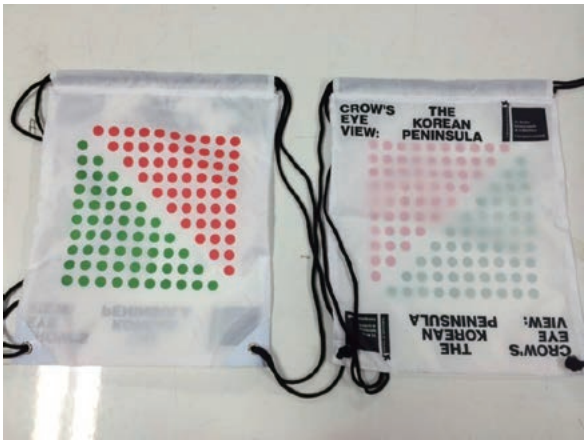
5. 한국관은 전시공간으로선 정말 유별난 건물이다. 보통 전시관이 4개의 꼭짓점을 갖는 사각형의 공간이라면, 한국관은 총 19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
6. '남북공동'이란 화두가 확실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공간을 그대로 살리는 명분은 확실했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색을 사용했다.
7. 현장 설치는 한달 이상 걸리기는 국가관도 있지만, 나의 경우 2주 전에 현지에 도착해 10일 만에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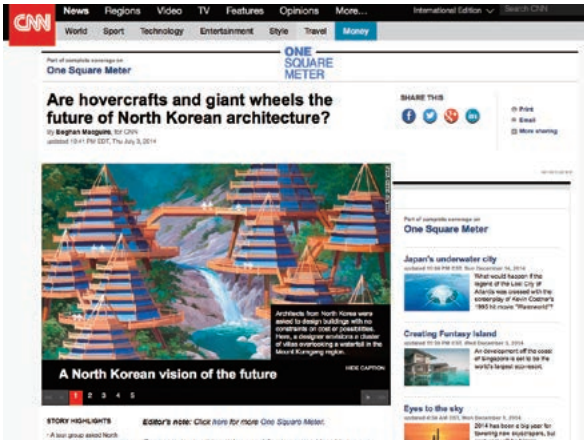





8. 의도된 신비주의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편을 택했다. 사실 설치 기간에 우연찮게 홍보할 기회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9. 큰 주제 속에서 커미셔너의 분석을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프닝 행사, 매체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프레스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10. 건축전 이후에도 베니스 한·중·일 지붕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11. 현재 뉴욕 티나 김 갤러리 (전시 기간: 2015년 9월 10일 ~ 10월 17일)에서도 전시가 진행 중이다.

## 발제3




## 정소익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비엔날레 총괄
- 도시매개프로젝트 소장

### 경력

-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2011
- 안양공공예쑬프로젝트 예술팀장, 2009~2010
- 진아종합건축사사무소, 하노이인터퓨처, 2008~2009
- 이탈리아 Carigliano 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조사, 계획, 2007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현황과 예측



비엔날레는 전시나 작품의 단편적인 이야기 보다는 어떤 크리티시즘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현재 비엔날레재단에 등록된 국내 비엔날레는 세마(SeMA)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총 3개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미술 관련 행사가 대부분이고, 2000년대 들어서 건축비엔날레, 건축트리엔날레 등의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먼저 현재 주목받는 비엔날레 몇몇 사례를 통해 각 행사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 설립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과 2015년 올해 설립된 시카고건축비엔날레는 그 형식이 아트비엔날레와 굉장히 흡사해서 담론 이외에도 작가와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런던건축페스티벌은 시민중심으로 일종의 축제처럼 진행된다. 로테르담건축비엔날레는 디자인워크숍을 중심으로, 홍콩-심천 도시건축비엔날레는 유일하게 타이틀에 어바니즘을 넣은 유일한 행사다. 탈린건축비엔날레는 에스토니아 건축의 국제화를 꿈꾸며 수도 탈린에 필요한 도시적, 건축적 비전을 현상 공모하고 구체화 시켜 나간다. 역시 올해부터 시작된 비엔나건축비엔날레는 서방 근대성의 원류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해 건축뿐만 아니라 예술도 포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슬로건축 트리엔날레는 북유럽 최대의 건축 축제로 전해진다. 중요한 건 모든 건축비엔날레가 건물이나 도시라는 정해진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융복합적인 미디어로 사회의 비전을 건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제안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총감독은 칠레 출신의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다. 그의 대표작으로 칠레의 100세대 주택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주택 점유지에 주택을 설계하고 만드는 법을 이용자에게 가르쳐주었는데, 특히 거주자의 행태 특성을 배려하여 집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스스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총감독이

밝힌 올해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 주제는 결국 건축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묻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형 인명피해 사고들이 연달아 이어졌을 때 건축계에서도 목소리를 모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아라베나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 회장 파올로 바라타(Paolo Baratta)가 부연 설명하기를 "이 시대의 특징은 건축과 사회의 불일치이다"며 "건축은 계속 스펙터클해지고, 건축주의 야망과 권력을 기리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한편, 사회의 요구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공익은 명백한 요구가 있을 때 생긴다. 하지만 그 요구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의 결정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결국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아라베나는 우리를 전투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명확한 질문을 향해 분투한다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 행사명 | 시작 | 차후 | 성격(주최측 설명) | 특징 | 행사-지역성 관계 | 차별성 |
|---|---|---|---|---|---|---|
|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 1980 | 2016.5 | 연구 및 새로운 예술 경향 발굴 / 확산의 선두 | 아트비엔날레 형식 (작품 및 작가 중심) / 국제적 명성 / 방계 행사의 자발적 지속 확장 | 없음 | 타 문화 분야 교류 / 최고 최대 행사 |
| **서울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 | 2017 | 2017 | 연구 및 새로운 예술 경향 발굴 / 확산의 선두 | 연구 중심 / 포괄적 국제 협력과 논의 / 시정 적극 연계 | 밀접 (도시 거버넌스의 일환) | 도시 파빌리온 / 시정 적극 연계 |
|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 2015 | 2015. 10 | 획기적인 건축 프로젝트, 공간 실험을 위한 장(플랫폼) 제공 | 아트비엔날레 형식 (작품 및 작가 중심) | 대학 디자인 스튜디오 연계 | 근대건축성지로서 시카고 정체성 계승 |
| **런던 건축페스티벌** | 2004 | 2015. 6 | 런던의 건축문화 및 건축자산을 시민과 공유 | 시민 대상 건축 문화 축제 | 밀접 (시민대상) | 건축문화 시민 축제 |
|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 2003 | 2016. 4 | 도시 간 지식 교류 도모, 도시 정책 수립에 기여 | 운영위원회에서 주제 제시 / 디자인워크숍 중심 | 면접 (지역 관련 주제) | 프로젝트 아틀리에 운영 (디자인 기반 연구) |
| **홍콩-심천 도시·건축비엔날레** | 2005 | 2015. 12 | 도시화의 방향 설정,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 공유 | 두 도시 연계 기획, 별도 운영 | 많음 (장소 적극 개선) | 행사를 기회로 장소 리노베이션 |
| **탈린 건축비엔날레** | 2011 | 2015. 9 | 지역 건축문화 육성, 에스토니아 건축과 세계 건축 간 교류 | 국제현상설계를 통한 탈린 비전 제시 시도 / 에스토니아 건축의 국제화 시도 | 밀접 | 건축축제 / TAB Tallinn Vision Competition |
| **비엔나 건축비엔날레** | 2015 | 2015. 6 | 예술적 야심과 창조적 경제, 분야 간 결합을 통한 새로운 관점 도출 및 긍정적 사회 변화 도모 | 예술, 디자인, 건축 융합 시도 | 미약 | 서방 근대성의 원류라는 정체성에서 출발 / 예술, 디자인 건축 융합 시도 |
| **오슬로 건축비엔날레** | 2000 | 2016. 9 | 건축 제안, 시민 참여 및 건축, 도시에 대한 지역적, 국제적 논의 | 북유럽 건축 문화 및 정체성 기반 | 밀접 | 북유럽 최대의 건축축제 |

1. 건축 비엔날레 비교를 통한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성격 파악



2.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주택 점유지에 주택을 설계하고 만드는 법을 이용자에게 가르쳐주었는데, 특히 거주자의 행태 특성을 배려하여 집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스스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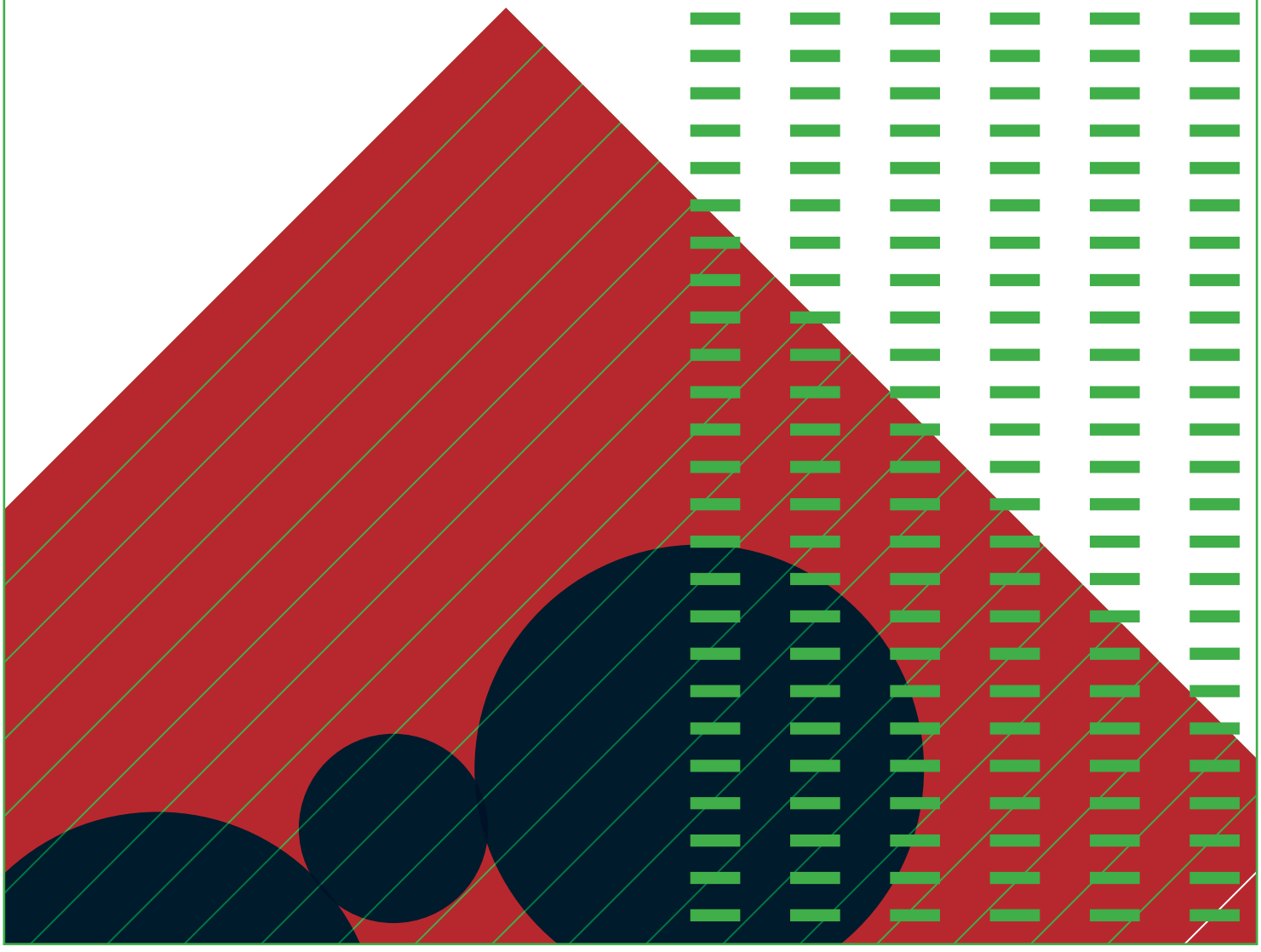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내년 건축전에서는 건축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 공공성에 대해 질문할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회의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커미셔너는 전시를 통해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건축가의 창의력을 통해 작은 변화라도 이끌어낸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 특히 서울의 사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건축정책을 보면 공공의 건축, 건축의 사회적 역할, 창의력을 통한 변화 창출, 집합적 노력 등을 키워드로 들 수 있다. 이 예로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004마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서울 소재의 동사무소 472개의 공간을 개선해 가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74개가 진행되었고, 2017년도까지 전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 사례는 전투적이기보다는 환경개선과 같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미처 관심을 두지 못했던 공공건축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04마을은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달동네로, 전면 철거식 개발이 아닌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총 12분의 건축가를 초대해 마스터 플랜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 개발을 요구하는 상태여서 답보상태에 멈춰있지만, 이런 과정상의 갈등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약 60여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건축정책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2016년 건축전에서 한국관의 방향은 미학 중심으로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입장 보다는, 실패한 사례일 망정 어떤 식의 책임의식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 2016년 한국관 전시 전략

**정연심**(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이용우**(상하이 히말라야 뮤지엄 관장)
**정소익**(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비엔날레 총괄)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
**한종률**(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준비 요소와 방향

정연심(정):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내년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이하 건축전)의 총감독이 되었다. '2016년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전시 전략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작년에 열린 제14회 건축전을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목표다. 발제에서 이용우 관장이 오늘 심포지엄이 상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나 역시 상보다는 좋은 전시와 내용을 전시 담론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1995년도 시각예술 부분 전수천 선생님을 필두로 시작되었고 그 후 약 20년이 지났다. 김영준은 그 동안 건축전에 다수 관련했기 때문에 좋은 전시 전략은 무엇일지 묻고 싶고, 한국건축가협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률에게는 국내 건축 분야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 부탁한다.

김영준(김): 나는 작년 커미셔너 선정에 지원했었고 그전에는 건축전 한국관 전시에 두어 번 참여했다. 작년 건축전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관에서 건축전의 전체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국가관 커미셔너 선정 과정도 몇 차례 봤는데, 주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취하고, 그 안에서 커미셔너를 선정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전체 건축전은 각 국가관의 주제와 내용이 서로 다르게 별개로 구성된 백화점식 구성이었다. 한국관 역시 주제에 크게 개의치 않고,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전시하자는 목표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작년에 대폭 바뀌었다. 그리고 내년 건축전에서 아라베나가 원하는 모습도 작년 총감독인 렘 콜하스가 가졌던 의도를 연장하고 더욱 강화하는 것 같다.



한국관이 작년 황금사자상을 받은 조민석 발표를 보니 과정 상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과연 누가 이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리가 삼을 과제는 조민석이 개인의 노력으로 추진했던 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든든한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사람만 있던 한국관에 외국인 관람객을 초대하고 파티를 여는 교류 시스템을 만드는 사소한 내용에서부터 비용, 스폰서 유치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건축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지금부터 전시까지 남은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운반하는 시간을 빼면 4개월 남짓 남았다.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라베나가 공개한 건축전의 주제 글에는 현재 상당히 많은 건축가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생각이다. 또한 20여년 진행해왔던 건축적인 방향을 바꿔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런 건축적 역할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알레한드로의 글과 일맥 상통한 이야기를 스페인어권에서 많이 하는데 "포멀(formal)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관계(relation)"라는 답을 많이 내놓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 또 본보기(model) 대신에 기준(criteria)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계와 기준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가 건축을 운동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로 풀어나갈 때에 어떤 변화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종률(한): 2012년 비엔날레 당시 작가로 참여했다. 그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받았다. 특히 '교류'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건축전은 각 나라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다 보면 서로 아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번 비엔날레는 전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작년은 국내외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 해외 미디어 인터뷰 등이 많이 구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전시를 이끌었다. 이런 점에서 커미셔너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커미셔너가 팀을 만들 때 주제를 잘 풀고 적절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소셜라이징도 중요하다. 건축전 기간 동안에 국내외 참가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기자단, 심사위원과 언제든 대화 가능한 자질이 필요하다. 또한 조민석의 발제와 나왔듯이 커미셔너가 스폰서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 주제에 대한 해석

정: 주제전이 있었지만, 건축 같은 경우 비엔날레재단에서 주제와 연계된 내용을 전시했으면 하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 미술 비엔날레와는 다르다. 또 건축전에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미학인가 윤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용우(이): 모든 비엔날레는 주제가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주제를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 주제를 많이 고민하겠지만 대부분 광범위하게 생각한다. 가령 매번 주제를 던져놓으면 넓은 식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긴다. 영화는 실험, 인디펜던트, 블록버스터 등 장르가 많은데 이와 비교하면 베니스 비엔날레는 블록버스터다. 첫째, 엄청난 예산이 들고 둘째, 재단의 규모가 크고 셋째, 참가 예술가들이 100명 이상이다. 이른바 대량화, 대형화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베니스 비엔날레다.
김영준이 말한 것처럼, 현대 문화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프랑스 큐레이터이자 미학자인 니콜라 부리오는 이런 관계미학, 관계 항에 대해 정의했다. 주제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광범위하게 남겨두고 예술가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좋다. 특히 블록버스터일수록 중간은 없다. 이 때 주제를 소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작품 패턴으로 드러나고, 협소한 시각으로 드러난다.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가 미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엔날레는 비평적이고 사회적이다. 비엔날레에서까지 전시를 미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지루해진다.

조민석(조): 렘 쿨하스가 감독한 작년 비엔날레는 블록버스터의 비판으로 시작했다. 알레한드로는 이런 비판을 조금 더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를 통해 건축의 주요 세대와 지역을 바꾸는 판 뒤집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각 나라의 전쟁, 작은 승리더라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스위스와 같이 너무 잘 사는 나라는 이야기 할 것이 많이 없을 듯하다. 미국은 벌써 두 명의 커미셔너를 선정해 디트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트로이트는 제조업이 완전히 망해가는 지역으로 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주제가 너무 명확해서 비엔날레의 모든 전시를 이것만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정: 아라베나가 말하는 전선(front)이라는 영역은 지점마다 다르다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선을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점에서 말하지 말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면으로 비켜나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소익: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점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년 건축전에서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비엔날레 전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들고 현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다 보니 각 프로젝트의 어두운 면은 보여지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이슈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니터링을 잘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좋게 포장된 전시도 좋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를 과정중심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만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이: 알레한드로는 개척자(frontier)같은 사람이다. 그가 내세운 건축전의 주제는 "건축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그래?"와 같은 물음이다. 이번 건축전을 그런 사회적 제안에 대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0년 동안 비엔날레의 지형도가 많이 변했다. 1970년대 베니스 비엔날레는 전시한 작품을 팔았다. 비엔날레 전시장이 시장바닥이었다. 작품 상행위가 지속되다 보니 철저한 상업주의의 모습이었다. 그런 행태에 반대하는 학생들 데모가 있었고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주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감독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통해 진화론적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전쟁을 겪었던 국가들이 관을 바꿔서 전시하고, 국가관에 타 국적 사람끼리 전시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열려 있어 엄청난 삼투압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융복합적 문화현상이 필요하다.

김: 알레한드로의 글을 보니 작년 비엔날레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년도 비엔날레 주제와 전시 내용에 공감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은 아트비엔날레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가 주요했다. 렘 콜하스는 국가관에 관한 집중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전선(front)이라는 주제어를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열려있다. 그 안에서 적절한 지표들을 잡아야 한다. 그게 결국 커미셔너의 능력이자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건축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가 논의를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과제다.

## 커미셔너 공모 지원자에 대한 조언

정: 실제 커미셔너 공모 지원자에게 조언이 필요할 듯하다. 커미셔너가 놓쳐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조: 건축계와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건축적 사례를 찾자면 숨어 있지만 존경할만한 건축가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젊고 상상도 못 할 프론티어들도 많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주제의식이

있어야 할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커미셔너가 건축계가 아니라 미술계 인사여도 좋을 듯하고 두 분야를 모두 꿰뚫고 있는 사람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펼치는 건축가들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특히 국제구호단체와 연관해서 실험적인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알레한드로는 디자인 생각은 하지 않고 윤리적인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건축에서 인정받는 요소는 디자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 작년 비엔날레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장이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누가 커미셔너가 되느냐의 문제는 프로젝트의 질보다는 아이디어하고 관련이 있다. 특히 미학적인 것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고 많은 국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눈에 들고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미학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인 것, 역사적인 것, 통찰력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아르코 공지: 2016년 규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가장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커미셔너는 한명으로 국가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공동 커미셔너와 부 커미셔너는 모두 금지되고, 커미셔너는 해당 국가관 전시를 제외한 비엔날레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국제전(본 전시), 타 국가관 전시, 병행 전시 등에 참여할 수 없다. 큐레이터의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큐레이터는 타 국가관 전시, 병행 전시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관의 커미셔너와 큐레이터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이전에 비엔날레 재단에 먼저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정연심

- 홍익대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 경력

- 뉴욕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미술사학과 조교수, 2006~2009
- 대전 FAST 디지털 파라다이스 국제전시
  커미셔너, 2005
- 미디어 아트: 대전 휘트니미술관
  Lawrence R. Rinder
  공동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2002
- 미국 소호 스페이스 유나이티드 갤러리
  현대미술 큐레이터, 1996

### 학력

- 미국 뉴욕대 대학원 예술행정학과 박사
- 미국 뉴욕대 대학원 예술행정학과 석사
-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 홍익대 영어교육학과 학사

## 김영준

- (주)김영준도시건축 대표
-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 서울건축학교 코디네이터
- 파주출판도시 건축코디네이터

### 경력

- (주)김영준도시건축, 대표, 1998~
-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Rotterdam, 1996~1997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1990~1995
- 공간사, 공간연구소, 1983~1989

### 학력

- 런던 AA School, 건축 대학원 (AAGDG) 수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한종률

- 한국 건축가협회 회장

### 경력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 KPF 건축사사무소
- 풀쉑 파트너쉽 건축사무소
- 프랭크게리 건축사무소
- 원도시건축
- 서울건축
-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참여작가, 2012

### 학력

- 하버드 대학원
- 미시간 대학원 석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